



보도자료

일 시: 2011. 1. 13(목)

발 신: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(880-9017)

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제기에 대한 예명

-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부정입학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힌다.
-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「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 26조 및 동시행령에 근거하여, 1) 입학 정원의 3분의 1이상은 비(非)법학사를 선발하고, 2) 입학 정원의 3분의 1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하여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 2009학년도에 150명(일반전형 140명, 특별전형 10명)을 선발하였다. 최초 합격자 기준 비법학사는 102명(68%), 타교 학부 졸업자는 50명(3분의 1)이었다.
-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 일반전형에서 5명이 등록하지 않았다. 이중 본교 학부 졸업자는 3명이었고, 타 대학 학부 졸업자는 2명이었다. 따라서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본교 학부 졸업자 3명, 타교 학부 졸업자 2명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하였다.
-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안00 학생은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였으며, 일반전형의 예비 합격자 순위 2번이었다. 따라서 정해진 충원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로 추가 선정되었다.
- 다음은 예비 합격자 충원 현황이다.

순위	1	2	3	4	5	6	7	8	9	10	11	12	13	14	15
이름	장00	안00	김00	남00	안00	전00	조00	한00	정00	류00	정00	박00	이00	이00	김00
본교 학부 졸업자	○	○	○	○	타교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타교
최종 합격자 순위	1	2	3		4										5

-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과 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을 선발하였으며, 부정입학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.